



자비의 선물 포장 현장
사부대중 한마음으로 자비를...

봄 햇살이 대지를 간질이는 5월 12일 서울 조계사 경내. 조계사를 장엄한 연등 사이로 내비치는 천연 햇살이 눈부셨다. 선정에 들면 한달음에 깨달음에 이를 것 같은 날이었다.

이렇게 좋은 날 연등 아래에서 작업복을 입고, 흰색 면장갑을 끼고 일 새 없이 일하는 이들이 있었다. 대웅전 앞에는 차곡차곡 쌓인 라면박스 가 성인키보다 높게 쌓여 있다. 사람들은 마당 앞에 펼쳐진 6개의 테이블에서 과자, 칫솔, 양말, 사탕, 치약, 책, 염주, 비누 등을 봉투에 담아 포장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분업화 된 공정과 협동 작업이 재빠른 손놀림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선물을 조계사 신도들이 직접 포장하고 있는 중이었다. 포장된 선물은 군인, 교도소 재소자, 전의경,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가정, 목거노인, 수급가정, 다문화 가정,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틈새계층 등에게 전달된다.

이 행사는 조계사(주지 토진)가 주최하고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 혜경), 농심이 후원했다. 조계사에서 3000여 만원, 아름다운동행 500만원, 농심에서 라면 1000박스를 지원했다.

“여기요, 여기요. 테이블에 칫솔, 치약이 부족해요, 갖다 주세요.”
“어디 어디요~? 뭐 더 필요하세요?”

“여기 좀 주목해 주세요. 샘플 보이세요? 양강은 2개씩 넣으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차곡차곡 넣어야 딱 맞아요.”
“아이고 정하게 오랜만이에요. 더 이빠졌네 그려.”
확자지결한 속에서 선물 포장하는 법을 알려주고 배우는 말들이 오갔다. 도반을 만나면 반갑게 맞으며 안부를 묻곤 했다. 함께 포장을 하러 나온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과 신도들은 뜻다 나눈 대화를 나누기도 하면서 서로의 안부와 신도회 상황에 대한 의견 공유도 했다.

“자비의 선물”이라고 쓰인 투명 봉투에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처님의 가피가 증만하기를 바랍니다”라는 축원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신도들은 투명 봉투 안에 준비한 각종 생필품과 간식들을 가득 넣었다. 조계사에서 역은 포교용 책자 <모두 함께 꽃이 되어>와 염주도 정성스레 담았다. 이날 만든 자비의 선물 꾸러미는 단 3시간여 만에 5280개가 만들어졌다.

신도들은 포장을 하던 중 물품이 모자라던 큰 소리로 원하는 물건을 달라고 소리도 치고, 그 시간도 아깝다고 여길 땐 먼저 나도록 뛰어가서 박스 채 물건을 들고 날랐다.

요즘 사람들에게는 넘쳐나는 것들이지만, 이것을 필요로 하는

**세 시간 만에 선물 5280개 포장
나눔은 불자들의 행복한 의무**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신도들은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스님과 신도들의 손을 거친 과자는 약으로, 칫솔은 치과의사로, 음료수는 감로수로, 경전과 염주는 마음을 치료해주는 의왕 부처님으로 전해졌다.

행사에 동참한 8명의 동자승들은 가슴 높이의 탁자에서도 정성을 다해 포장했다. 어른보다 더 꼼꼼했다. 포장 마무리에서 박스에 옮길 때까지 한 과정도 빠지지 않았다. 과자를 보고도 먹고 싶다는 말보다는 “저도 할래요”라며 의욕을 보였다. 공양할 시간이 되자 자비심어든, 호기심어든 “또 만들고 싶어요. 공양하고 또 만들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모습은 그대로 아기 부처님이었다.

조계사 신도회 김금순 부회장은 이렇게 기원한다.
“부처님의 가르침 화합을 나눔의 장으로 실천하고 있어 매우 기

쁩니다.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즐겁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 올해 봉축행사가 그 어느 때보다 뜻 깊게 느껴지네요. 자연재해와 경제악화 등으로 모두가 어려울 때 나눔으로 모두가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물먹을 틈도 없이 바쁘게 진행된 자비의 선물 포장은 힘든 시간이 아니었다. 입정하지 않아도 이 순간 수행으로 깨달음의 길을 갈 뻔이었다. 불법과 인연을 맺은 이들이 해야 할 행복한 의무였다.

한편, 포장을 하고 있는 근처에도 다양한 나눔의 장이 펼쳐졌다. 불교계 최초 사회적 기업인 연우와함께(이사장 이상근)는 해외 약탈문화재 환수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조계사 앞 우정국 공원에서 5월 10~20일 유기농 식품을 판매했다.

9일에는 2010 어울림마당에서 진행된 자비나눔 행사를 통해 불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금이 1억1692만6200원이 모였다. 10일 영화사(회주 월주)는 아름다운동행에 자비나눔 기금 3000만원을 전달하고, 14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과 아름다운동행에서 중국 청하이 티베트사처구 지원과 복구 기금 5만 달러를 전하며 나눔의 열기를 더했다.

글=이상연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www.coredata.co.kr

www.coredata.co.kr

코어데이터와 SK 브로드밴드 IDC가 함께 합니다.

» 코어데이터 소개

(주)코어데이터는 국내최고의 인터넷 데이터센터 SK Broadband IDC에 입주하여 최고의 인터넷 전산 환경에서 고객사의 전산시스템 및 네트워크 운영을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운영대행해주는 IT 아웃소싱 전문업체입니다.

“귀사를 위한 통합 IT 관리 서비스”

기술지원
다양한 고객들에게 얻은 축적된 기술 시스템 안정화 지원

인력지원
고객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파트너 적재적소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 인력 지원

통합관리
고객의 E-Business 사업 파트너로서의 전문 컨설팅

관리 서비스
모니터링, 보안, 리포팅, 백업, 복구 서비스

서비스 기대효과

- IT시스템 운영 원가 절감
- 최신기술의 전문 인력과 고품질의 IT역량 확보
- 안정된 네트워크 보안 및 인프라 환경은 원활한 서비스 보장
- 최적의 성능유지로 신속한 장애처리

체계화 된 IT 체계구현

기업(전략적 경영)	고객서비스 혁신
업무효율화	
핵심역량강화	
기업가치 상승	
기업 경쟁력 강화	

서비스 문의 02-6266-3178

긴급 H-P 010-4272-9851 / E-mail : master@coredata.co.kr
위치 : 137-885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0-1 SK Broadband IDC 1층 (주)코어데이터

www.jawonet.com

www.jawonet.com

정신 집중이 잘 되고 머리가 상쾌해지는 - 희담석 방식

사용방법
좌선용, 학생 및 사무용 의자, 소파, 차량 등에 사용하십시오
희담석 방식은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해야 하는 운전자, 학생, 사무원, 스님 등 수련하시는 분들께 매우 유익합니다.
(오래 앉아 있어도 피로가 쌓이지 않습니다.)

보급형 정가 45,000원
(색상 : 황토색, 위세)

고급신형 정가 50,000원
(색상 : 황토색)

사이즈 450mm×450mm

희담석의 에너지가 숙면을 도와주는 - 희담석 베개용 패드

정가 : 25,000원
(색상 : 황토색)

사용방법
베개 위에 올려놓거나 베개 커버를 벗겨서 패드를 올려 놓은 후 다시 커버를 씌우고 사용합니다. (뒷면 미끄럼 방지 도트 처리로 밀리지 않습니다.)

- 아침에 일어나서도 개운하지 않는 분
- 두뇌 활동이 많은 학생
- 스트레스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 등

**명상과 함께 하는 -
희담석 염주목걸이 · 합장주**

건강과 활력을 주는
**희담석의 무한한
에너지 방사능력을 체험해 보세요.**

이런분께 권합니다.

- 수행하시는 스님 및 불자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
- 목과 팔목의 뻣근함을 느끼시는 분
- 피로가 누적된 분
-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수행생
-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셀러리엔

희담석의 생명의 에너지를
목걸이(팔찌, 합장주)에 담았습니다.
목과 팔목이 뻣근하신 분들에게는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염주목걸이 정가 66,000원
▶ 할인가 56,000원

합장주 정가 35,000원
▶ 할인가 30,000원

www.jawonet.com에서 카드 구입시 2~3개월 무이자 할부가 됩니다.

제품문의 011-9230-2335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0-1 SK Broadband IDC 1013호
TEL: 02-3478-2335 FAX: 02-3478-2505